

[종합·해설]

오늘부터 18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여야 전략은?

‘직불금 책임’ ‘민주주의 후퇴’ 집중 공략

한미 FTA 비준·대북정책 등 공방 불가피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기국회 후반기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제를 만든 것도, 불법 수렵자가 넘쳐난 것도, 그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도 참여정부의 일이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방침이다.

한미 FTA 동의 비준안은 미국 사정과 무관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확정된 만큼 이에 대한 명분을 전파하는데 대정부 질문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외환과 증시 불안이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하지만 현 위기가 외생변수로 생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정부질문에서 노련한 2~4선 의원을 선두에 세우고 그 뒤로 초선 의원을 대거 포진시킨 것도 이 같은 현안을 공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포석이다.

최고위원으로 유일하게 집권자나 나선 공성진 의원은 쇠고기 파동, 김강산 피격, 금융파동 등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위기를 연속해서 맞고 있는 점에 주목해 정부의 위기 관리대책을 추궁하기로 했다.

민주당=경제정책 실패와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악화를 3대 주요 쟁점으로 삼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

진하려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아연 인사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잇따른 수사 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논란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거론할 대상이다.

방송장악과 인터넷통제 논란, 교과서 왜곡 및 국정택 서울시교육감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날카롭게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남북문제에도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급랭한 남북관계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6·15선언 및 10·4선언의 계승과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0명의 대정부질문자 가운데 초선인 최영희, 이용섭, 조영택 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7명 모두 재선급 이상의 검증된 의원들로 채우는 등 질문자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최고위원인 송영길, 박주선, 김진표 의원이 투입되고 5선인 김영진, 3선인 추미애, 이종걸 의원도 질문자로 나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정, 한미 FTA 비준 TF팀 구성

황진하 위원장 “10일째 상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이달근 조윤선 의원, 정창호 농림식품부 제1차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4명이 맡기로 했다. 정 차관은 한미 FTA 비준이후 대책 마련에, 신 차관은 FTA 비준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된 TF 위원으로는 당 외교통상동일위 수석전문위원인 박찬봉 김영서 위원, 조원동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임종순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 정 승 농식품부 FTA 교섭대표, 이상복 청와대 홍보2비서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실무대책팀은 당에서는 정책국의 김대원 정책홍보팀장을 비롯한 4명이, 정부에선 이호영 총리실 재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 TF팀 구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윤선 대변인. /연합뉴스

정산업정책관을 포함한 5명으로 꾸려졌다.

황 의원은 “당정청의 유기적 협조 속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꾸렸다”며 “내일(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여야 간사들이 비준동의의 외투위 상정을 위해 계속 접촉중

이고, 오는 10일째 외투위 상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측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동일위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내에 의원 외교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할 방침이다.

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의원들 대정부 칼날 베티다

김동철 의원 등 5명 질의...수도권 규제완화·광역경제권 등 맹공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3일부터 7일까지 5일동안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5명의 국회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8개월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운다.

우선 3일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광산 갑)이 이명박 정부에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에 나선다. 김 의원은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광역경제권 구성 등 이명박 정

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궤도를 이탈, 표류하고 있다며 이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4일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동구)이 남북관계 전반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발 3000비현실성을 날카로 지적한다. 또 작게 5029의 허구성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남북 관계 등에 대해서도 따진다.

같은 날 박지원 의원(목포시)은 햇볕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강

력한 비판의 날을 세운다. 여기에 북 핵 문제 해결에서의 한국 역할과 갈수록 축소해 지고 있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한다.

5일에는 조영택 의원(서구 을)이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과 식품 안전 정책, 시민사회 공안탄압 문제에 대해 집중 조망한다. 조 의원은 과도한 예산 부담으로 갈수록 복지 분야가 취약해지고 있는 지방 정부의 상황 등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할 방침이다.

세계와 부동산 정책의 민주당 대표 주자인 이용섭 의원(광산 을)은 6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중부세 등 이명박 정부의 세계 정책 문제점을 파고든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의 경제 위기 국면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는 중부세 인하보다는 부가세 인하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정부의 입장을 따질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李 대통령, 오늘 라디오 연설

경제·금융위기 극복 국민 협조 당부할 듯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를 통해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오를 전하고 국민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연설은 KBS1, 교통방송, MBN의 DMB라디오 등에서 오전 7시50분을 전후해 7분여 방송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첫 라디오연설을 갖고 국내외 금융위기 해소 대책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참모는 2일 “이 대통령이 이

번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 필요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소상히 밝히고 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참모는 또 “한시간 300억 달러 스와프 계약 체결로 외화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금융위기가 심물 경제 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수 진작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당대표 연설도 정규 편성

KBS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째 라디오연설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방송하는데 이어 정당대표의 라디오연설도 대통령 연설 다음날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내보내기로 했다.

KBS는 “3일부터 1라디오(97.3㎒)를 통해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격주 월요일 오전 7시46분부터 약 7분간 방송한다”고 2일 밝혔다. KBS는 또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들에게 방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 연설 다음날인 화요일 오전 같은 시간에 정당대표의 라디오연설도 독립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방송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MDPass advertisement for MDPass Education, featuring text about job preparation and exam succes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Professional Academy) by Kwangju Gosihakwon, highlighting exam preparation and course details.

Advertisement for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New and Public Brokerage Specialist Professional Academy) by Kwangju Gosihakwon, featuring nationwide instructor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7.9급 공무원 합격 대비' (7.9 Grade Civil Servant Exam Preparation) by Mdgosi, offering intensive study courses.

Advertisement for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tudy in Korean Medicine University! Possible in Korea!) by SCU Korea, promoting international study opportunities.